



주임신부: 조민현 요셉 (201) 944-1061

보좌신부: 신용문 야고보 (201) 944-1061

부 제: 윤상진 스테파노 (201) 988-7157

전교수녀: 정미숙 금주벨베뚜아 (551) 237-0037

사목회장: 이병일 라파엘 (201) 838-2920

연령회: 안용진 바오로 (201) 753-1206

사무실: 월~금 9:00A-05:00P (201) 944-1061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성 미카엘 성당'은, 여러 민족들과 다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공동체로서, 열린 마음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의 다양한 경험이 모여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우리 모두 끊임없는 열정, 새로운 사고와 창의력으로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도록 언제나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로서, 현재 기존의 교우들뿐만 아니라 새 식구가 된 새 교우들도 함께 아우르고 감싸 안는 '만인의 사랑의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 지역과 교회의 사명을 위해 힘을 것입니다.

▷ 미사 안내 ▷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5:30(영어 - 주일 저녁미사)
	주일 오전 7:30(영어) 9:30(한국어) 11:30(영어)
	오후 1:30(스페인어) 5:30(한국어)
평일미사	영어 매주 월~금 오전 7:30 11:00 토 오전 9:00
	한국어 매주 화 오후 7:30
	스페인어 매주 수 오후 8:00
성시간	매주 목 오후 8:00(영어·한국어·스페인어)

예비신자교리
병자성사
고해성사
유아세례
혼인성사

▷ 성사 및 교리 ▷

매주 주일 오전 10:30
위급할 때
미사 전후
매월 셋째 주일 미사(사무실 예약 바람)
1년 전 예약(영어, 한국어 가능)

▷ 이번 주 전례 안내 ▷

입당송	목자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았네.
제1독서	집회서 3,2-6.12-14
화답송	시편 128(127),1-2,3.4-5 (◎1)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제2독서	콜로새서 3,12-2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2,13-15,19-23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분이신 주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려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송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 신앙고백 ▷

(미사 파견 후) '성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에서 저희를 지켜주소서.	
사탄의 악과 간계에서 저희를 보호해 주소서.	
간절히 청하오니,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탄을 쫓아버리소서.	
천상 군대의 영도자 미카엘 대천사님, 영혼들을 멸망시키려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으로 쫓아버리소서. 아멘.	

◁ 말씀의 식탁 ▷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자비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옷처럼 입으십시오"라고 권고합니다(콜로 3,12). **마리아는** "주님의 종"으로서 하느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지요.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묵묵히 따르며 마리아와 아기를 보호하는 친절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며 성장하셨습니다(루카 2,51).

이 가정이 보여준 가장 위대한 가치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입니다" (콜로 3,14)라고 하였듯이, 서로가 **완전한 끈이 되어**,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냈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마태오 복음은 성가정이 겪은 **고난**의 여정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헤로데의 칼날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난민 생활, 불안과 두려움과 같은 혹독한 시련들은 오히려 이 가정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가정'은 고난을 피한 가정이 아니라, 닥쳐오는 예기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신뢰를** 다지며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가정은 우리에게 완벽한 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 **용서하고**(콜로 3,13), 서로 **사랑하고**(콜로 3,14),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을 신뢰하며**(마태 2장), 서로 **공경하는**(집회 3장) 일상을 살아내라고 초대합니다. 오늘 성가정 축일을 통해, 우리 가정이 세상의 시련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작은 교회'가 되도록 굳건한 믿음과 사랑을 청합시다.

▶ 기도 지향 안내

- 레오 14세 교황님, 교회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 12월 28일 오전 9:30

• (연) 프란치스코 교황님, 기일 맞는 조성락 프란치스코, 조용수 바실리오, 조경훈, 이병렬 프란시스, 전광룡 그雷 고리오, 오진희 바울라, 오평환 바오로, 정명모 요셉, 강혜봉 골룸바, 정미숙 실비아, 임상열 벨라도, 류배영 요한, 박민철 요셉, 한주민 미카엘라 기억되는 모든 연령

• (생) Christine Javorsky Family, 김복순 헤레나, 원현경 엘리사벳, 한인양 실비아, 이명희 아네스, 이지원 아가다, 알아논, 신찬숙 마리아, 콜렛 덩 가정, Steven Ahn 가정, 박노빈, Euri Lee 가정, 서병태 스테파노 형제님과 가정조민현 요셉 신부님, 신용문 야고보 신부님, 스탠리 로보 신부님, 윤상진 스테파노 부제님, 모든 사제와 수도자, 우리 모두

- 12월 28일 주일 오후 5:30

• (연) 정병배 알렉산델, 김동갑 데레사, 신인태 베드로, 기억되는 모든 연령

• (생) 정지연 안나, 박미지 라파엘라, 모든 교회 봉사자, 조민현 요셉 신부님, 신용문 야고보 신부님, 스탠리 로보 신부님, 윤상진 스테파노 부제님, 모든 사제와 수도자들

- 기도 지향 예물은, 홈리스 등 이웃 위한 "기금 구좌"에 예치, 뜻깊게 쓰입니다./주일 지향은 평일에도 올려집니다.

▶ 이번 주 (28일)은 2차 현금이 있습니다.

▶ 매주 지향을 두며 봉헌 드리는(수)오후 7:00 묵주기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장소 - 통상 야외 성모상)

▶ 전대사 수여 교령 알림(2026/01/06 까지) - 뉴우침, 죄 멀리함, 애덕 실천, 참회 성사, 영성체, 교황님 지향 기도로 은총 받을 수 있습니다: [게시물/동영상 참조](#)

Faith Formation

▶ CCD(주일 학교) 프로그램 안내

- 교육: 매주 주일 10:00 노틀담 아카데미
- 대상: 1학년~8학년 학생
- 추가 신청 양식: 본당사무실 문의

▶ Youth Group - 매월 4주

- 대상: 8학년~12학년/교육: 영어 진행
- 일시: 12/28(일) 오후 3:00-4:00 /장소: 과달루페 방

▶ 월간(月刊) 청년(Cenacolo) - 매월 3주

- 일시: 1/18(일) 오후 6:45-8:00 / 장소: 과달루페 방

▶ 미사 안내

- 12/31(수) 전야 - 오전 7:30 과 오전 11:00
- 1/1/2026(목):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 오전 7:30, 9:30, 11:30 오후 1:30
(성당 사무실은 휴무입니다.)

▶ 울뜨레아 신년 하례식: 1/11(일) 마돈나 성당

▶ 연령을 위한 미사

- 일시: 1/13(화) 오후 07:30(미사 후 연도 있습니다.)
- 돌아가신 분들 위한 지향은 본당 사무실 문의

▶ 비대면 “성서 사십 주간-신약” 수강 신청

- 매주 성경 말씀에 비추어 묵상하고 생활하며, 15 주간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수녀 강의)
- 일시: **(수)1/21-4/29 오전 10:00**
또는 **(목)1/22-4/30 오후 8:00**
- 비용: 교재 \$25 + 수강비 \$70
- 문의: 안 루피나 845-825-9562
- 신청 마감: **2026/1/11(일)**



▶ 조민현 요셉 신부, 윤상진 스테파노 부제 함께 하는 루르드, 파티마 성모 성지와 스페인 성지순례

- 일시: **2026년 3/1-3/13/ 비용: \$3,850**
- 순례지: 루르드 성모 성지, 파티마 성모 성지, 몬세랏 수도원, 빠르도로, 로욜라, 아빌라, 스페인 산티아고
- 문의: 조 모이세 (908-489-7007)

▶ 여성 제 41 차 꾸르실료 수강생 모집

- 일시: **4/16~4/19/2026/** 주님 안에 깊은 신앙으로 거듭날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문의: 본당 울뜨레아(간사: 김용호 도밍고)

▶ 초, 제병, 포도주 봉헌 신청

- 사랑하는 이(생존, 선종) 기리는 방법 중 하나로, 주일제 대 초, 제병, 포도주 봉헌 중 한 가지 또는 모두 봉헌 가능합니다./ 초: \$15, 제병: \$25, 포도주: \$25

▶ 주보 광고 간증/시작

- 광고비: \$250, \$500, \$1,000(1년 단위)/문의: 본당사무실

▶ 인사 문화 만들기 + 새 교우분 환영합니다.

- 주일 9:30 미사 후 친교에 함께 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 친교 기부- 주일 9:30 미사 후 친교 나누세요.

- 공동체에 활기 더할 기부 받습니다./ 문의: 본당사무실

▶ 주님 계신 성전 안에선 꼭 '정숙'하여 주셔요!

사해복 많이
받으세요 福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12/ 21단위: \$)

미사시간	1 차	크리스마스	교무금
토요특전	5:30 PM	231	4,129
주 일	7:30 AM	572	458
	9:30 AM	2,047	2,473
	11:30 AM	1,259	1,195
	1:30 PM	986	744
	5:30 PM	791	535
계	\$ 5,886	\$ 9,534	\$ 16,520

- **교무금:** 윤상진 스테파노(11-12), 폴 한(11-12), 이규홍 유스티노(10-12), 함성길 알로이시오(7-12), 테레사 송(12), 박인성 루시아(10-11), 강민정 리오바(10-11), 권정원 바오로(10-11), 유상영 스테파노(10-11), 하이경(10-11), 유현준 마르코(10-11)

- **감사헌금:** 이환동 루카, 백수진 엘리자벳 가정, 김서현 클라우디아, 민혜숙 카셀라인, 조동금 라파엘 조은희 모니카

- **성당 복사단의 크리스마스 저녁과 선물을 백광한 야고보 형제님께서 도네이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aint Michael Church

▶ 성 미카엘 성당 QR 코드 안내

- 휴대전화 카메라로 QR 코드 비추기만 하면 쉽게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 재정 비리 보고 도구 - 비리 사항 기밀로 보고하십시오

- 재정 비리가 의심 경우, **EthicsPoint**를 이용해 주십시오. 이는 대교구 공동체가 긍정적인 본당, 학교, 직장 환경을 조성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독립적이고 기밀이 보장되는 보고 도구입니다. 신고 전화 및 보고 링크는 www.rcan.org를 방문해 주십시오.

◁ 1분 교리 ▷

● 사랑으로 연결된 반지?

- 혼인성사 중 반지와 약수는 혼인을 하는 외적 증표의 역할을 하지요. 이때 혼인 반지는 서로를 연결해 주는 것을 의미하기에 끊어진 것은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사정에 따라 반드시 새 반지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끼던 반지를 가공하는 것도 허용), 극심한 가난 등 불가피한 경우는 팔 수도 있지요. 그리고 반지를 다시 맞추었을 경우는 다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 교리책 밖의 교리 이야기 ①)